

천주교 인천교구 간석2동 성당
- 한국의 성당 -



설계 방향

절제되어 있으면서 풍요롭고 힘있는
레벨이 복잡하지만 단순, 명쾌한 동선이 있는
개방되어 있으면서 아늑한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의 공간으로 느껴지는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 각 공간의 특성을 가지며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

간석2동 성당은 아름다운 마당을 통해
장소, 자연, 건축, 사람이 '소통하는 성당'이다.



현황 분석



3,441㎡의 일반적인 도심지 성당보다 대지가 크다.

40년이 넘는 성당 건물이 있는 이 대지에 새로운 성전과 교육관, 사제관, 수녀원을
건축하는 프로젝트이다.

성당 인근은 밀집된 건물들로 인해 열린 공간과 녹지공간이 부족하였으며,
대지는 전체적으로 조망이 차단되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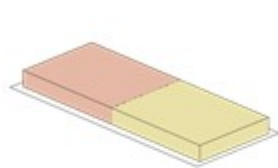
공간 활용

성당은 단순하고 직선적인 형태로 어수선한 주변지역에서 차분한 종교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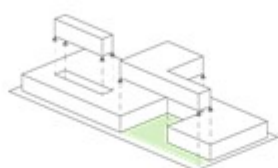
기존의 경사를 활용한 계획으로 대지에 순응하며 한국적 배치와 정서를 담고자 노력하였다.

1층의 안마당을 둘러싸고, 대성전과 교육관이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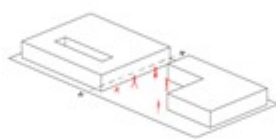
대지가 가진 위계에 따라 가장 높은 곳에 본당이 자리하며, 도로에서 중심인 안마당으로 접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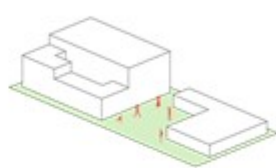
프로그램 (본당/교육관)



비움 (마당)



소통



자연

직선적인 조형을 가진 종탑과 대성전의 모습.

단순할 수 있는 형태에 창살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깊이감과 다채로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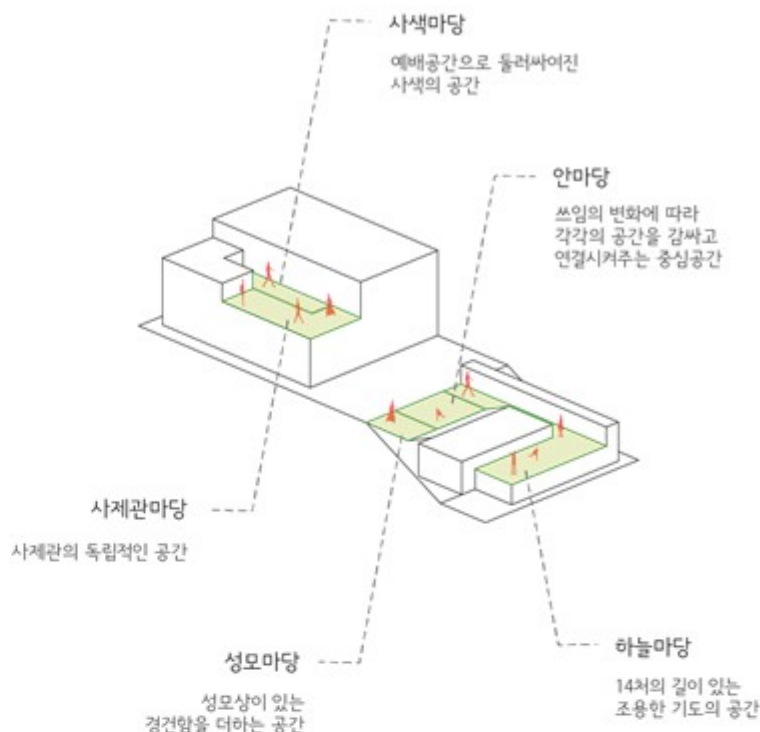


다섯마당

계획의 시작은 마당에서 출발했다.

1974년 지어진 본당과 필요에 의해 건축된 부속시설들은 매우 낡았지만, 대지 중심의 마당은 오래된 나무로 둘러싸여 세월을 간직한 채, 다양한 행사로 활용되는 주변지역 소통의 장이었다. 간석2동 성당의 아름다운 마당에 대한 추억이 신축되는 성당에 이어지도록 여러가지 마당을 만들어 앞으로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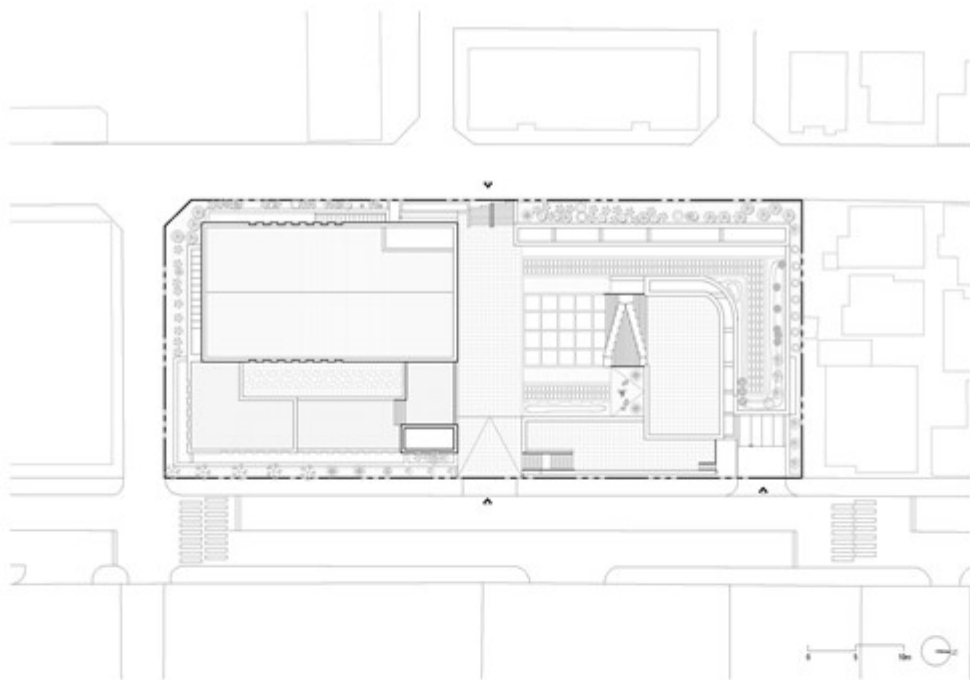
마당은 자연, 사람, 건물이 함께 어우를 수 있는 배치를 함과 동시에 분절된 매스를 이어주어 공간적인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활동을 만들어내고 마당 간의 소통을 이끌어내어 서로가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마당 아래에 위치한 교육동과 소성전의 외부 모습.
대지 경사에 의해 다양한 레벨에서 성당 내부로의 진입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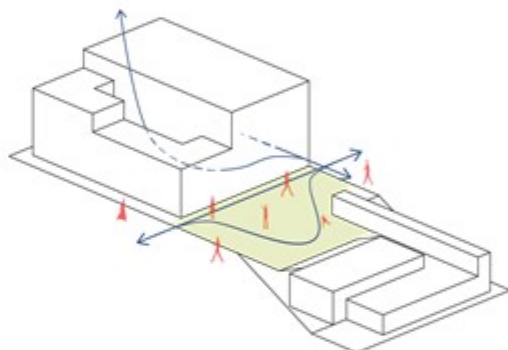


공공기여



가로로 긴 형태의 대지 중심에 위치하는 마당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지나가는 길로, 잠시 앉았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주변지역 사람들에게 도심 속 쉼터가 된다. 이 곳이 밀집된 건물들 사이에서 작지만 소통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라였다.

소통은 길-마당-길로 이어지는 외부공간에서 끝나지 않는다. 마당은 대성당과 연계된 홀, 중정형의 사색마당으로 이어져 성당 내외부로의 연결을 이루어 낸다. 이로 인해 마당 뿐만 아니라 성당 전체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성모마당, 안마당과 마주보는 대성당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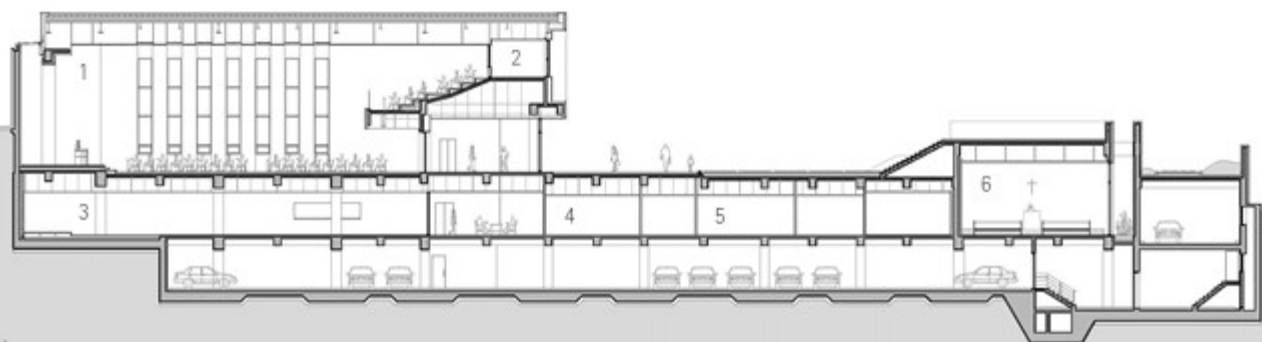


기존 대지의 형상을 따라 가장 높은 곳에 대성당을 배치하여 자연스러운 공간의 위계를 형성하였다. 이에 더하여 내부공간 연출을 통해 성스러운 공간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내부의 절제된 재료와 자연의 빛을 사용하여 제대를 향한 집중도를 높였다. 회중석을 뒤쪽으로 배치하여 확보한 개방감 있는 공간에 수직적 창을 더하여 단순하지만 성스러운 신전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였다. 이는 제대를 비추는 천창과 함께 대성당에서의 경건한 기도와 미사를 도와준다.



1. 대성당 내부 모습.
천창과 수직적 창을 통해 유입되는 자연채광과 성당 내부의 목재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2. 대성당 입구 문 디자인. 한국적인 미를 느낄 수 있다.



- 1 대성전
- 2 유아실
- 3 교육관
- 4 교리실
- 5 사제집무실
- 6 소성전

하늘마당 안마당 성모마당

왼쪽에서부터 하늘마당, 안마당, 성모마당.
교육관의 상부는 하늘마당으로 안마당,
성모마당과 이어지며 휴식과 기도의 공간이
된다.



사색마당

사색마당.
중정형으로 조용하고 아늑하다.



소성전

지하층 성전의 두 면을 감싼 선근을 통해
기도에 방해 받지 않으면서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